

潛隱 姜怡의 저술로 본 그의 삶과 교류 인맥의 특징

최 은 주*

- I. 머리말
- II. 강흡의 저술과 편집·간행 과정
- III. 강흡의 삶의 자취와 교류 인맥 : 봉화 법전 정착 이전과 이후
- IV. 강흡의 인맥기반 범위와 그 특징, 그리고 후대에 끼친 영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潛隱 姜怡(1602~1671)의 삶과 교류 인맥의 특징을 살핀 것이다. 강흡은 본래 한양·파주 출신이었으나 병자호란 직후 가족을 이끌고 봉화 법전으로 피난하여 정착함으로써 이 지역에 진주강씨의 뿌리를 내린 인물이다. 이후 법전의 진주강씨 문중은 영남지역에서는 드물게 노·소론계를 표방하며 그 역사를 지탱해왔다. 강흡의 삶의 이력과 그가 교류한 인물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법전의 진주강씨 후손들이 표방했던 가학의 전통이 어디에서 근본하는지 그 기저를 탐색해보기 위함이다. 현전하는 강흡의 저술은 문중에서 보관해 온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와 1912년에 간행한 목활자본 『잠은선생실기』 그리고 1969년에 간행한 석인본 『잠은선생실기』가 있다. 1969년 석인본은 목활자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사본 유고와 목활자본 실기 두 본을 비교 검토하여 도출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ejchoi@koreastudy.or.kr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를 저본으로 삼아 수정 가감하고 취사 선택해서 간행한 것이 목활자본 『잠은선생실기』라는 점이다. 편집은 대략 19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편집 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취사선택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시기 후손들도 노·소론계를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강흡의 先代는 일찍부터 파주에 근거지가 있었고 강흡의 조부 강덕서는 이이와 교분이 두터웠다. 이 당시 대를 거듭해 관직에 나아가 서울 경기 지역의 명문가와 혼맥을 형성하면서 강흡의 가문은 자연스럽게 서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강흡은 김장생을 사사하고 그의 문하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냈으며, 성균관에 들어가서는 유생들과 함께 우율종사 청원 상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강흡의 출신과 가문의 입지, 사승 관계 및 교류 인물 등 여러 가지 배경 요소들을 검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강흡의 삶과 교류 인맥을 봉화 법전 정착 이전과 이후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봉화 법전에 정착한 이후 강흡은 이 지역에 문중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기 위해 지역 명문 사족과의 혼사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았지만 교류 인맥 범위가 확연하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봉화에 정착했던 태백오현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 교류 인맥은 법전 정착 이전과 비슷한 범위를 유지하였다. 결국 이러한 인맥이 아들 조카 손자들의 사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배경이 되어 법전의 진주강씨 문중은 영남 지역에서 드물게 노·소론계를 표방해 왔던 것이다.

◆ 주제어

太白五賢, 潛隱 姜怡, 陶隱 姜恪, 봉화 법전, 진주강씨, 법전 진주강씨, 영남 노론

I. 머리말

임진왜란 이후 강좌 지역은 학문적으로는 퇴계학과, 정치적으로는 남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분화와 결속을 거듭하게 된다. 지역 士林들은 家學의 전통을 바탕으로 학맥의 분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적 정치적 고립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인’으로서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해 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줄기의 외형적 흐름에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잡한 관계망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 성격을 띠는 지역 사회집단 안에서도 개인의 출신과 입지 예컨대 가문의 전통, 학파의 계승, 혼맥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과 특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돌려 말하면, 이러한 개인의 개성과 특색이 날줄과 씨줄처럼 날날이 교차하면서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고 그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다시 일정한 공통성을 견지한다는 사실이다.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수록 ‘영남’·‘남인’·‘퇴계학과’ 중심의 연대감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안동 권역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세거해 온 진주강씨 법전문중의 내력은 그래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 드물게도 노·소론 계열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주강씨 법전문중이 법전 마을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都事工 姜胤祖(1568~1643)와 그의 두 아들 潛隱 姜恰(1602~1671), 陶隱 姜恪(1620~1657)이 병자호란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태백산 아래 법전 星岑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법전은 당시 안동부 춘양현에 속해있었다.) 이곳에 정착한 이후 형인 강흡의 후손들은 주로 노론 계열을, 동생인 도은 강각의 후손들은 주로 소론 계열을 표방하며 가학을 이어왔다.¹⁾ 지역의 전반적 경향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색을 가지기에, 진주강

1) 임규완, 「법전 진주강씨와 해운 강필효」,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173~178쪽 참조.

씨 법전문증은 일찍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그 관심은 주로 풍부한 저술을 남긴 立齋 姜再恒(1689~1759)과 海恩 姜必孝(1764~1848)에게 집중되었는데,²⁾ 이 두 사람은 강흡의 동생인 강각의 자손이며 강재항은 명재 윤증을 사사하고 강필효는 소곡 윤광소를 사사하면서 소론 계열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잠은 강흡의 삶과 그의 교류 인맥이다. 진주강씨 법전문증이 법전에 정착할 때 그는 가족의 구심점이었다. 부친 강윤조는 노쇠하였고, 계모 파평윤씨가 낳은 동생 강각은 겨우 17살이었다. 자신의 아이들도 姜郞가 13세, 姜鄆가 9세, 姜邳가 7세로 매우 어렸다. 넷째 姜槲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다. 강각은 법전 정착 후인 1645년(인조23)에 남양홍씨와 혼인을 했는데, 당시 부친 강윤조가 세상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형 강흡이 혼사를 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³⁾ 그러나 강각은 38세의 나이로 요절하였고, 그의 처 남양홍씨는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다. 이 때문에 강각의 두 아들 姜鄆과 姜邳는 어려서부터 백부 강흡과 백모 청송심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들의 행장과 묘갈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진주강씨 법전문증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던 그 기점에 강흡의 영향은

2) 강재항에 대해서는 석사학위논문 1편과 단위논문 3편이, 강필효에 대해서는 단위논문 3편이 있다. 연구 성과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남봉우, 「입재 강재항 한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강구을, 「입재 강재항의 학문과 문학」,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63~113쪽 ; 박인호, 「입재 강재항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115~170쪽 ;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특히 입재 강재항과 명재 윤증 가문의 경우—」,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7~26쪽 ; 임규완, 「법전 진주강씨와 해은 강필효」,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171~193쪽 ; 장호중, 「해은 강필효의 한시 연구—유람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195~238쪽 ; 장호중, 「해은 강필효의 구곡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6집, 한국한문학회, 2014, 317~357쪽

3) 1645년(인조23) 11월 30일에 강흡이 사돈 홍육에게 보낸 납폐서가 있다. 아우 강각과 따님 남양홍씨의 혼례를 허락해주셔서 모친의 명을 받들어 보낸다는 내용이다. (『도은종택 및 석당공』 수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목록집 41, 한국국학진흥원, 2017.)

그야말로 전방위적이었다. 그의 삶의 이력과 그가 교류한 인물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후손들이 표방했던 가학의 전통이 어디에서 근본하는지 그 기저를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흡 개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다만 앞에서 소개한 강재항·강필효에 대한 논문과 ‘태백오현’과 관련된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는 정도였다.⁴⁾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먼저 강흡이 남긴 저술의 실상과 함께 후손들이 그와 관련된 후학들의 기록을 덧붙여 實記를 편찬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수정 가감의 양상을 통해 실기 편집에 투영된 후손들의 의식을 엿보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강흡의 삶의 자취와 그에 따른 교류 인맥을 법전 정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서울 중심에서 영남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가 이동함에 따라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떤 삶을 추구했으며 그리고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추적해보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강흡의 인맥기반 범위와 그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II. 강흡의 저술과 편집·간행의 과정

강흡의 저술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목활자본 『잠은선생실기』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⁵⁾ 後孫 姜晁永(1836~1912)은 이 책의 後識를 쓰면서 “潛隱府君의 높은 절개와 훌륭한 행적은 『尊周錄』의 ‘陪臣列傳’과 諸賢들이 쓴 그의 행장과 묘갈에 실려 있어

4) 권경록, 「태백오현의 삶을 통해 본 봉화지역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38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 신두환, 「두곡 홍우정의 은둔사상과 문학세계 연구」, 『한문고전연구』 3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5) 姜怡, 『潛隱先祖實記』(乾) 卷1, 〈凡例〉, “先生爲學 專務踐實不尙詞華 曾無一草稿巾衍之藏 亦可見先生盛德中一事耳 今去先生之世二百四十有餘年 僅得若干遺文於知舊間及休紙中蠹蝕剝落者 殆半之然 片言尺字 皆發於平日咳唾之餘 則不可任其散爛 並入於實記之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文辭는 그 대략이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니 識者들이 한스러워한다.”⁶⁾라고 하였다. 강흡의 저술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생전에 그가 저술 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 그의 두드러지는 행적에 비해서 저술이 상대적으로 소략한 것에 대해, 후인들은 강흡이 오로지 학문의 실천에 힘쓰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詞華를 말단으로 여기며 그에 연연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저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강면영을 비롯한 후손들은 강흡의 시문 약간과 함께 그의 연보와 후인들이 쓴 행장·묘갈류 그리고 만·제문 등을 수집 정리하고 그 뒤에 俟德祠 봉안문, 二吾堂 상량문, 시호를 요청하는 상소 등을 덧붙여 實記 형태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實記 편찬의 목적이 분명하듯 당시 후손들은 이 책을 통해 강흡의 시문과 생전 행적을 현창하는 동시에 그의 사후에 이루어졌던 관련 事跡들을 집성해 보존하려 하였다. 아래는 『잠은선생실기』의 체제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목활자본 『잠은선생실기』의 체제

① 卷頭: 범례 / ② 卷1: 世系, 年譜

③ 卷2: 詩 42수 / ④ 卷3: 書 13(知人)·18(子·姪·孫), 祭文(3), 疏(1), 序(1), 跋(1)

⑤ 卷4: 輓詞, 祭文 / ⑥ 卷5: 家狀, 家傳, 墓碣銘, 墓誌, 諡狀 / ⑦ 卷6: 俟德巖誌 외

권두의 범례와 연보에 의하면 이 책은 강흡이 세상을 떠난 지 240여년이 지난 壬子年(1912)에 완성되었다. 권1의 「세계」는 始祖 姜以式부터 14世 강흡까지 세대를 따라 차례대로 기술한 것이다. 연보에는 1601년(선조34)부터 1671년(현종12)까지 그의 전 생애와 그의 사후에 지역 유생들이 문을 통해 태백오현의 사적을 조정에 알린 일, 또 爵諡疏를 올린 과정과 시호를 하사받고 延諡禮를 행한 일들이 시간 순에 따라 기

6) 姜怡, 위의 책(坤) 卷6, <跋>(姜晁永) “卓節美行載在尊周錄列傳及諸賢狀碣 赫赫人耳目 而至若文辭不少概見於世 識者恨之”

록되어 있다. 연보 제일 마지막에 ‘壬子實記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권 2와 권3에는 강흡의 遺文이 실려 있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다. 두드러지는 것은 서간문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과 그 중에서도 아들과 조카 그리고 손자들에게 보낸 것이 많다는 점이다. 권4부터는 附錄이다. 권6은 그의 행적이 기록된 서적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거나 봉안문, 상량문, 축문, 爵諡疏 등 그를 위해 후손 또는 후인들이 작성한 글들을 정리 수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살펴봐야 할 책이 있는데, 바로 진주강씨 법전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필사본 『二吾堂先祖遺稿』이다. 4권 2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1책은 표지를 포함하여 8장 정도가 윗부분이 훼손된 상태다. 표지에는 ‘潛隱先祖遺稿’라고 쓰여져 있다. 이 책의 체제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강흡의 교류 인맥이 드러나도록 증시와 차운시 그리고 서간문과 제문의 경우 그 대상인물을, 강흡을 위해 지은 만사·제문과 묘도문자는 그 찬자를 함께 표시하였다.

▶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의 체제와 내용

- ① 卷1: 고시 2수(증시/洪錫), 5언절구 17수(차운/尹宣學·洪錫)
 7언절구 24수(차운/睦來善·南宮鉦·李重慶·李尙眞·洪錫, 증시/朴廷龍·趙相愚, 만시/權聖源)
 5언율시 4수(차운/金止男·李哲, 만시/李惟曾·金遇秋), 7언율시 6수(차운/李哲)
- ② 卷2: 書 知人 52편, 子·姪·孫 82편(子/鄒·鄧·邱, 姪/鄧·鄧, 孫/再烈·再發)
- ③ 卷3: 跋 2편, 祭文 3편(弟[姜恪]·沈長世·李惟曾)
- ④ 卷4: 附錄 묘갈명(李緯), 가장(姪[姜鄺]), 諡狀(金炳學), 묘지명(玄孫[姜澣]) 제문(李哲·任有後·金啓光·李耆善·沈穗·洪錫·姪[姜鄺]), 만사(李哲·洪錫) 呈文, 사덕정사봉안삼선생문, 축문[분황시], 사덕사상량축문, 贈爵諡疏, 贈爵諡疏, 이오당중수상량문
- ⑤ 卷5: 年譜 1601~1671, 1864년(고종1) 11월까지

필사본인 『이오당선조유고』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이사이 필체가 흐트러진 부분이 간혹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필체가

일정하므로, 한 사람이 문집 간행을 위한 저본으로 강흡의 유문과 관련 기록들을 수집 정리해서 정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연보를 기준으로 삼아 필사연대를 추정해 보면 대략 1850년대 후반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1852년(철종3)까지의 필체와 그 이후 1860년(철종11)부터 1864년(고종1)까지의 필체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필사본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들, 조카,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아들과 조카의 이름을 직접 적은 것들도 있지만, 兒輩, 姪孫, 子姪 등 여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들도 많다. 이렇게 보낸 많은 편지들은 강흡이 50대 중반 이후 벼슬에 제수되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법전에 뿌리를 내리면서 집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심했고, 특히 아들 조카 손자들의 교육까지 정성을 쏟으며 관리하고 또 복돋았다. 편지에는 강흡의 이러한 마음들이 잘 녹아 있다. 필사본의 이 遺稿와 1912년 간행된 實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다.

- ① 遺文의 경우: 實記 편집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산삭. 詩는 총 11수를, 書는 대상을 알 수 없는 或人에게 보낸 편지와 子·姪·孫에게 쓴 편지 중심으로 총 102편을 대폭 덜어냄. 극히 일부는 추가된 것이 있음. 제문과 서발문은 그대로이고, 사직상소문은 實記 편집 때 추가함.
- ② 附錄의 경우: 實記 편집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추가 보완. 曾孫 姜元一과 從孫 姜再恒이 쓴 家傳 추가. 그의 행적이 기록된 서적에서 관련 부분 발췌 추가.
- ③ 年譜의 경우: 遺稿의 기록을 바탕으로 實記 편집 과정에서 축약 또는 추가 보완. 유고에 없으나 實記에 추가된 기록 있음.

후손들은 實記를 편집하고 간행하면서 시는 일부를, 아들과 조카, 손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대폭 산삭하였다. 또한 대상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준 편지들이 꽤 있었는데(或人 또는 관직명만 기록한 경우), 이 또한 거의 덜어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고에서는 빠져 있었던 편지 2편이 추가되었는데, 강흡이 同春堂 宋浚吉(1606~1672)과 尤菴 宋時烈(1607~1689)에게 보낸 것이다. 시의 경우에는 작품 자체를 아예 누락

시키거나 연작시는 일부를 덜어내기도 하였으며, 제목을 고치거나 작품 일부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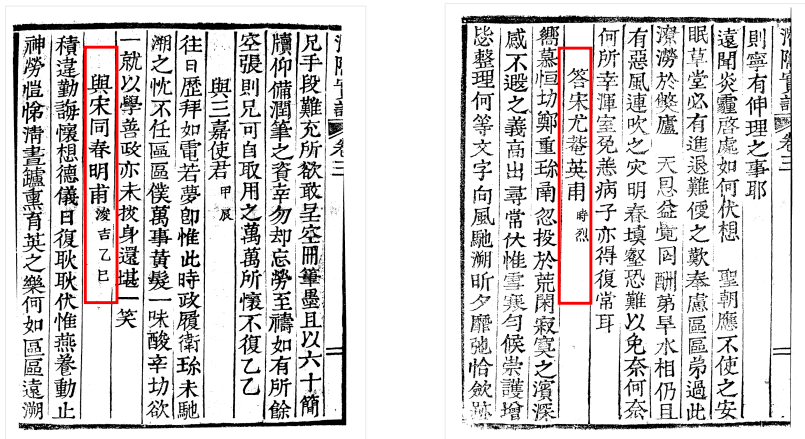


[그림 1] 『이오당선조유고』(왼쪽)의 목래선에게 보낸 시와 『잠은선생실기』(오른쪽)의 해당 부분

왼쪽 그림은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이고 오른쪽 그림은 목활자본 『잠은선생실기』이다. 표시한 부분을 보면 유고의 시 제목이 고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강흡이 성현도찰방에 재직하고 있을 때 睡軒 陸來善(1617~1704)이 청도군수에 재직 중이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사마시에 함께 합격해서 교류한 친분이 있었고, 이 때 그가 이웃의 수령으로 부임해 다시 만난 것이다. 아마 목래선이 먼저 시를 보냈기에 강흡이 이에 차운하여 다시 보낸 것 같다. 후손들은 이 시를 편집하면서 「次陸清道來善韻」의 제목을 「贈人」으로 고쳤다. 목래선에게 보낸 것이 분명한데 이름을 삭제하고 ‘누구에게 주다’라는 범범한 제목으로 바꾼 것이다. 목래선은 眉叟 許穆(1595~1682)의 문인으로 기호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할 때, 좌의정에 임명되어 송시열을 처벌하자는 주장에 가담하였다. 실기 편집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보이는 것은 간행을 주도하는 후손들에게 ‘목래선’이

라는 인물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고에 누락된 송준길과 송시열의 편지가 실기에 추가된 것도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강흡이 남긴 글이 적기 때문에 당시 그가 이들과 어떤 인연을 실제로 맺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다만 삶의 자취를 추적해 볼 때, 활발한 교류는 아닐지라도 이들과 알고 지내며 일정한 관계는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실기에 편지가 실려 있는 부분을 옮긴 것이다.



[그림 2] 『잠은선생일기』의 송준길에게 보낸 편지(왼쪽)와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오른쪽)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는 강흡이 산음현감에 재직 중일 때 당시 송시열이 지었던 환아정기문을 보며 감읍했던 경험을 추억하며 보낸 것이다. 송시열은 1664년(현종5)에 당시 산음현감 李誠哲의 부탁으로 환아정의 기문을 지었는데,⁷⁾ 강흡이 이 해에 산음현감으로 부임했으니⁸⁾ 아마도

7) 宋時烈, 『宋子大全』 권140, 「山陰縣換鵝亭記」

8) 본 논문 III장 2절의 [표-3] 참조.

이 일이 이루어진 직후였을 것이다. 강흡은 1669년(현종10)에 산음현감을 그만두고 봉화의 본가로 돌아왔고, 이후 편지를 써서 송시열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유고에 이 두 통의 편지가 누락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실기를 간행할 때 이 두 통의 편지를 찾아내어 수록한 사실은 당시 후손들의 계파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뚜렷한 사례라고 하겠다.

연보에 의하면 강흡은 생전에 일기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어 곳 일기와 관련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 한 부분 “공이 손수 기록한 曆書日記가 산실된 것도 있고 보존된 것도 있어서 공의 평생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다.”⁹⁾라고 되어있으므로 일기의 유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집안에 남아있던 강흡의 遺文을 최대한 수집해서 1860년대쯤 필사 정리한 것이 곧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이고, 이후 유고를 저본으로 삼아 내용을 취사선택 수정가감해서 1912년에 편집 간행한 것이 목활자본 『잠은선생일기』인 것이다.



[그림 3]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의 일부분

9) 姜怡, 『二吾堂先祖遺稿』(坤) 권5, 「年譜」 丁亥(1647, 인조25, 46세), “公手所筭曆書日記 或失或存 公之平生未能詳譜”

왼쪽 그림은 유고의 권2 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단에 四와 五의 표기는 실기에 실린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의 글자들은 내용에 빠지거나 고쳐야 할 글자를 표시한 것이다. 실제로 實記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오른쪽 그림은 조카 찬과 맏손자 재열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된 부분이다. 제목 아래 표시한 네모 안에는 ‘萬은 종 8대 조부 재열의 아명이다.(是萬從八代祖父諱再烈兒諱)’라고 가필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강흡이 집안의 자제들에게 보낸 편지는 대폭 산삭되었다. 여하튼 가필의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유고를 저본으로 수정가감한 시점이 姜再烈(1647~1729)로부터 8대가 지난 대략 1900년대 초반 즈음이라는 것이다. 『잠은선생실기』는 1969년에 석인본으로 재간행된 바 있는데, 이 책은 世系를 당대까지 보완해서 덧붙인 것이 앞의 책들과 다른 점이다. 내용적 부분에 있어서는 연보와 부록 부분에 약간씩 보완한 측면이 있다.

III. 강흡의 삶의 자취와 교류 인맥

강흡은 1636년(인조14) 겨울에 交河(현재 경기도 파주) 월룡산 山寺에서 주자서를 읽고 있었다. 갑자기 닥친 胡亂 소식에 놀란 그는 온 가족을 데리고 남쪽 福州(현재 안동)로 피난을 결심하고, 혹독한 피난길을 거쳐 이듬 해인 1637년(인조15) 1월에 당시 안동부(현 봉화군) 태백산 아래 法田 마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2월 청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대로 정착하였다. 이것이 진주강씨 법전문중의 시작이었다.

진주강씨 법전문중의 파조는 강흡의 조부 姜德瑞(1540~1614)이다. 강덕서는 사간원정언을 지낸 姜億(1498~1554)의 셋째 아들로, 1586년(선조19) 과거 급제 후 관직이 홍문관응교에 이르렀다. 외직으로는 한산군수, 덕원부사, 평창군수를 지냈는데, 덕원부사에 재직 중일 때 그 곳 관아에서 손자 강흡이 태어났고, 이후 평창군수에 부임할 때도 강흡을 데려갔다. 또한 그는 栗谷 李珥(1536~1584)와 사이가 두터웠다고 한다.

강덕서의 부인 竹山朴氏는 선공감역 朴思寬의 딸이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姜胤祖(1568~1643)뿐이다. 강덕서의 묘소는 교하 야동에 있다.¹⁰⁾ 강흡의 부친 강운조는 1606년(선조39) 생원시에 급제해 의금부도사를 지냈고, 외직으로 성현찰방을 지냈다. 그의 첫 번째 부인 한양조씨는 副司果 趙璫의 딸로 1남 4녀를 낳았는데, 1603년 강흡이 겨우 7세 일 때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 부인 파평윤씨는 奉事 尹弼世의 딸로 1남 2녀를 낳았다. 강흡의 동생 강각은 곧 파평윤씨의 소생이다.

1. 봉화 법전 정착 이전

병자호란을 피해 법전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강흡의 삶은 주로 사승 관계를 형성하며 과거 공부에 몰두한 시간이었다. 아래의 표는 이때의 주요 행적을 필사본 유고와 목활자본 실기를 교차 검토하며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1] 35세 이전 강흡의 주요 행적 : 봉화 법전 정착 때까지

연도	연령	행적	출처
1601 (선조35)	1세	▶덕원부(함경도 덕원군) 관아에서 출생 *조부 덕원부사 재직	遺稿實記
1608	7세	▶모친상을 당함. 외가에서 양육, 외조모 弟 金穎男에게 『사략』배움 ▶象村 申欽에게 수학	"
1609 (광해군1)	8세	▶조부가 평창군수로 부임하게 되어 따라감	"
1614	13세	▶조부상을 당함. *묘소는 交河 治洞에 위치 ▶부친이 侍墓하니 강흡이 서울과 파주를 자주 왕래함	"
1618	17세	▶청송심씨와 혼인. *沈俔의 女, 沈之源의 妹	"

10) 『晉州姜氏派譜』, <贈都承旨公家傳>(姜再恒),

1620	19세	▶沙溪 金長生에게 수학	實記 기록
1623 (인조1)	22세	▶장자 鄙가 태어남	遺稿·實記
1627	26세	▶차자 鄙가 태어남	〃
1628	27세	▶부친이 성현찰방에 부임하게 되어 따라 감	實記 기록
1630	29세	▶생원회시 합격, 성균관에 들어감. 6월에 三子 鄙가 태어남	遺稿·實記
1631	30세	▶스승 사계 김장생을 고향 ¹¹⁾	實記 기록
1635	34세	▶성균관 유생들과 牛栗從祀 청원 상소를 올림. *疏事를 주도함	遺稿·實記
1636	35세	▶겨울에 交河 월룡산 산사에서 朱書를 읽다가 오랑캐 침입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난 결심. 이듬 해 1월 3일에 복주(현재 안동) 태백산 아래 法田에 도착.	遺稿·實記

강흡은 7세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고 외가에서 양육되었는데 이때 외조모의 동생 金穎男(1547~1617)에게 『사략』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표에서 보이듯이 유고에는 이때의 기록에 象村 申欽(1566~1628)에게 배웠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공은 또한 일찍이 象村 申欽에게 공부를 배웠는데, 그 年月이 자세하지 않아서 우선 여기에만 기록한다. (遺稿 연보 7세 때 기록)¹²⁾

강흡이 어려서 신희에게 수학한 사실은 陶菴 李緯(1680~1746)가 쓴 그의 묘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기에는 12세의 기록에 “선생이 象村 申文貞公에게서 수학하였는데, 문정공이 크게 칭찬하고 깊이 인정하였다.”¹³⁾라고 하였다. 이후 19세에는 沙溪 金長生(1548~

11) 姜怡, 위의 책, <年譜> 庚午(1630, 인조8, 29세), “八月 哭沙溪金先生”

12) 姜怡, 『二吾堂先祖遺稿』(坤) 卷5, <年譜> 戊申(1608, 선조41, 7세), “公亦嘗從申象村欽學 而未詳年月 姑記于此”

13) 姜怡, 『潛隱先祖實記』(乾) 卷1, <年譜> 癸丑(1613, 광해군5, 12세), “先生 受學于象

1631)에게 나아가 공부를 배웠다. 이 기록은 유고에는 없고 실기에만 있는데, 그 끝에 “西溪 朴世采(1631~1695)의 『동유사우록』에 이 사실이 실려 있다”고 되어있다.¹⁴⁾ 『동유사우록』은 박세채가 신라에서 조선 宣祖代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道學師友의 연원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김장생의 「문인록」에도 강흡이 들어가 있으므로,¹⁵⁾ 강흡이 김장생에게 수학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흡은 1630년(인조8) 29세에 생원 회시에 합격했다. 이후 성균관에 들어가 여러 유생들과 학문을 익히고 과거 공부에 매진하면서 進就를 도모하였다.¹⁶⁾ 그리고 1635년(인조13) 성균관 유생들이 우계와 율곡을 문묘에 종사하기를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강흡은 疏色을 맡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재가 쓴 강흡의 묘지명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오년(인조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太學에 들어가니 士論의 추중을 받았다. 을해년(인조13)에 우계, 율곡 두 선생을 문묘에 종향하기를 청원할 때 공이 실질적으로 疏事를 주도하였다.¹⁷⁾

강흡이 美村 尹宣舉(1610~1669)가 보낸 시에 차운한 작품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淸詩兼遠札	맑은 시와 함께 멀리서 보낸 서찰
知子訪名山	그대가 명산을 찾아다님을 알았네
失脚雖非志	세상에 발을 헛디딘 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羞將吉甫看 ¹⁸⁾	장차 그대 보기가 부끄럽구나

村申文貞公 文貞公獎許甚重焉”

14) 姜怡, 위의 책, <年譜> 庚申(1620, 광해군12, 19세), “受業于沙溪金先生 承心體力行之旨 事載朴玄石文純公所撰東儒師友錄”

15) 金長生, 『沙溪全書』 권47 附錄, <門人錄>

16) 姜怡, 『二吾堂先祖遺稿』(坤) 卷5, <年譜> 庚午(1630, 인조8, 29세), “遊泮宮 爲諸友所推重 與諸生講磨習學業 以圖進就”

17) 李緯 『陶菴集』 권31, <縣監姜公墓碣>, “公少從象村申相國欽學”

18) 姜怡, 『二吾堂先祖遺稿』(乾) 卷1, <次尹美村(宣舉)投贈韻>

이 시를 보낼 당시 윤선거는 금강산·태백산 등 명산을 찾아다니며 유람하고 있었는데, 시기는 대략 1664년(현종5) 즈음이었다. 마침 이때 강흡은 산음현감에 제수되어 부임한 터였다. 實記에는 이 시 뒤에 윤선거가 강흡에게 먼저 보낸 시가 덧붙여 있는데, 그 내용은 “천리의 영남역, 만 겹의 태백산. 劉子驥의 편지를, 그대[馬曹]게 보낸다.”¹⁹⁾이다. 윤선거의 비유가 유의미하다. 자신은 유자기로 강흡은 馬曹라 지칭했다. 자신은 산수를 유람하며 도화원을 찾아다니고 강흡은 관직에 있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강흡이 이 시에 차운해서 보낸 것이 바로 위의 작품이다. 세 번째 구절의 ‘失脚’ 즉 발을 헛디뎠다는 것은 세상 풍진에 발을 잘못 들었다는 의미로 벼슬살이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윤선거 보기가 부끄럽다고 하였는데, 강흡이 당초 법전으로 내려올 때 出仕의 뜻을 접고 은둔하려 했지만 결국 이 뜻을 지키지 못하고 관직에 있게 된 것이 스스로 후회되고 부끄러웠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이기는 하나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강흡과 윤선거가 젊은 시절부터 꽤 막역했던 사이였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윤선거는 김장생의 아들이자 제자인 愼獨齋 金集(1574~1656)을 사사하였고, 김장생의 제자인 송준길·송시열 등과도 매우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법전 정착 이전 젊은 날의 강흡이 주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인물들과 교류했는지 그 윤곽이 그려진다. 그는 선대부터 파주에 근거지가 있었고, 부친 강운조가 자신의 아버지 강덕서를 파주 先壟에 장사지낸 후 그 곳에서 시묘할 때부터는 강흡 역시 한양 장의동 또는 목사동의 집에서 파주까지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²⁰⁾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은 파주 출신이고, 강흡의 조부 강덕서는 이이와 가깝게 지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강흡은 신희에게 공부를 배우고 김장생

19) 姜怡, 『潛隱先祖實記』(乾) 卷1, <次尹美村吉甫(宣學)投贈韻> 附原韻, “千里嶺南驛 萬重太白山 憑將子驥札 寄與馬曹看”; 간행된 윤선거의 문집에는 이 시가 실려 있지 않다.

20) 姜怡, 『二吾堂先祖遺稿』(坤) 卷5, <年譜> 甲寅(12세, 1614, 광해군6) 기록 참조.

을 사사하였으며, 또 그 문하에 있던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이다. 그가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들과 함께 우율종사 청원 상소를 주도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강흡은 스스로 서인이라 여기며 당파 대립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한양·파주 출신으로 가문의 내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다.

2. 봉화 법전 정착 이후

연보의 기록으로 볼 때, 법전 정착 직후에는 강흡의 두드러진 행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부친 강윤조는 노쇠하여 한 동안 병으로 누워있었고 계모 파평윤씨의 소생인 동생들(1남 2녀)이 어렸으며 셋이나 되는 자신의 아이들도 겨우 10세를 전후한 나이였다. 그는 집안의 중심이었으며, 정착을 결정한 후에는 기반이 없는 타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쏟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정황은 문중에서 전해지는 여타 문서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²¹⁾ 당시 강윤조의 처 파평윤씨가 자신의 몫으로 유산을 나누어 받아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자손들은 봉화·춘양 일대의 토지 매득에 힘쓰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했다.²²⁾ 특히 강흡은 정착 초기에 계모 파평윤씨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과정들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흡이 외직에 있을 때 아들과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토지 경영과 농사 관리에 대해 자주 당부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일정 부분 연결된다고 하겠다.

溪巖 金垚(1577~1641)의 일기 1638년(인조16) 3월 5일의 기록을 보면 강흡이 김령을 찾아가 자신의 여동생(파평윤씨 소생)과의 혼인을 청

21) 이 문서들은 『도은종택 및 석당공』(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목록집 41, 한국국학진흥원, 2017)에 간략 해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22) 이에 대해서는 정수환의 「17세기 분재와 전답소유권: 명문, 입지 그리고 분재기-경상도 봉화 법전 진주강씨 사례」(『국학연구』 39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하는 기록이 나온다. 그 상대는 김령의 셋째 아들 金輝斗였는데, 이때 강흡은 부친의 뜻을 대신하며 여동생의 혼사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몇 번의 왕래 끝에 김령이 혼인을 허락하였는데, 김령이 이날의 일기에 기록하길 강흡 가문이 타지에 들어와 가난과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택한 방편이 지역 사족과의 결혼일 것이라고 하였다.²³⁾ 강흡은 여동생의 혼인 후에 예안을 자주 방문해 김령과도 그의 자제들과도 친밀하게 지냈다. 여러 기록으로 보건대 법전 정착 직후 강흡은 집안의 구심점으로서 거주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래저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래의 표는 36세 이후 즉 법전 정착 후를 기준으로 강흡의 주요 행적을 작성한 것이다. 역시 유고와 실기를 비교 검토하였다.

[표-2] 36세 이후 강흡의 주요 행적 : 봉화 법전 정착 이후

연도	연령	행적	출처
1637 (인조15)	36세	▶6월에 선교랑 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함	遺稿·實記
1643	42세	▶4월에 부친상을 당함. 11월에 交河 先壟에 返葬하고 돌아옴. *이때 繼母 파평윤씨가 법전에 있었음	"
1646	45세	▶2월에 예안에 가서 누이 김씨(金鈴의 子婦, 金輝斗의 妻)를 곡함	"
1647	46세	▶2월에 누이 김씨 小碁에 가서 곡함	"
1650 (효종1)	49세	▶杜谷 洪宇定, 遜愚堂 洪錫과 함께 태백산을 유람함.	"
1654	52세	▶陶山에 가서 退溪 李滉의 사당에 참배함 ▶6월에 次子 郇를 곡함. 10월에 四子 邳가 태어남.	"
1656	55세	▶두곡 홍우정의 상례에 감	"

23) 이에 대해서는 최은주의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퇴계학과 유교문화』 55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을 참고할 수 있다.

潛隱 姜怡의 저술로 본 그의 삶과 교류 인맥의 특징(최은주)

1657	56세	▶4월에 아우 도은 강각을 곡함. ▶6월에 세자익위사 세마에 제수되어 상경함. 12월에 侍直이 됨	"
1659	58세	▶5월에 세자익위사 부술이 됨. ▶3월에 휴가를 내어 집에 내려왔을 때 계모 (파평윤씨)상을 당함	"
1660 (현종1)	59세	▶3월에 계모를 交河 先壠에 부장함. 覺今堂 沈長世를 곡함.	"
1662	61세	▶晚沙 沈之源을 곡함. 省峴道察訪에 제수되 어 부임함.	"
1663	62세	▶解怪祭를 지내기 위해 興海(현재 포항)에 갔다가 晦齋 李彦迪의 사당에 참배함.	"
1664	63세	▶산음현감에 제수되어 부임함. 南冥 曹植의 사당에 참배함.	"
1665	64세	▶향교에서 釋奠을 지내고, 西溪書院(德溪 吳 健)으로 가서 배알함 ▶감영에 사직소를 올렸으나 체임되지 않음.	遺稿기록
1666	65세	▶7월에 長子婦 金氏를 곡함	
1667	66세	▶9월에 조카와 손자들에게 抱翁 鄭養을 찾 아가 공부하라고 지시	實記기록
1668	67세	▶2월에 조카와 손자들에게 萬休堂 任有後에 게 가서 古文을 배우라고 지시 ▶5월에 포옹 정양을 곡함	實記기록
1669	68세	▶산음현감의 임기가 차서 집으로 돌아옴	遺稿·實記
1670	69세	▶봄에 현감 당시 軍布未收건으로 복주 웅천 역에 유배되었다가 5월에 해배	"
1671	70세	▶법전에서 考終, 교하 야동에 返葬	"

위의 표를 보면, 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정작 초기 몇 년 동안 크게 두드러지는 행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1643년(인조21) 부친상을 당하고 상례를 마칠 때까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여동생(김휘두의 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상례에 참석하는 정도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 강흡은 거주 기반 안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었는데다가, 부친 강윤조의 병수발에도 지극정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강흡의 효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주목되는 강흡의 행적은 바로 太白五賢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과의 밀접한 교류이다. 태백오현은 강흡을 포함해 覺今堂 沈長世(1594~1660), 杜谷 洪宇定(1596~1654), 抱翁 鄭瀼(1600~1668), 遜愚堂 洪錫(1604~1689)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한양 출신 명문가의 자손들로 병자호란을 피해 태백산 줄기 봉화 문수산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대명절의의 명분으로 춘양·법전·봉성 일대에 각각 정착하였다.²⁴⁾ 이 시기 강흡의 연보에는 이들과 얹힌 기록이 꽤 자세한데, 주로 出仕를 단념한 채 산수간을 逍遙하며 음풍농월의 시간을 함께 보낸 이야기들이다. 위의 표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 드러난다. 연보뿐만 아니라 강흡의 詩文에도 이들과 교류한 흔적이 뚜렷하다. 앞의 [표-1]을 보면 특히 홍석에게 주거나 그가 보낸 시에 차운한 작품이 많고, 심장세에게 보낸 편지도 다수 보인다. 또 심장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제문을 짓기도 했다. 정양과는 편지 한 통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집안의 아이들을 그에게 보내 수업을 받게 할 만큼 교류가 돈독하였다. 홍우정과도 가까이 살면서 物外之交를 맺었는데, 연보 기록에 강흡이 홍우정의 부고를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강흡은 1657년(효종8) 세자익위사 세마에 제수되어 상경하였다. 동생 강각이 죽은 그 해였으며, 이 때 그의 나이 56세였다. 이후 1662년(현종3)에는 성현도찰방이 되어 부임했고, 2년 뒤 1664년(현종5)에는 산음현감에 부임했다. 그리고 5년의 임기를 채우고 1669년(현종10)에 법전으로 완전히 귀향하였다. 강흡은 만년에 약 12년 동안 관직 생활을 지속한 것이다. 그는 성현도찰방과 산음현감에 재직하면서 백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선정을 펼쳤다. 이에 대한 그의 치적은 연보와 행장·묘갈 등의 기록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수령의 임무에 강흡이 얼마나 충실했었는지는 「스스로 지어서 홍공서[洪錫]에게 봉정하다」라는 시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²⁵⁾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강흡은 재직 당시 있었

24) 권경록, 「태백오현의 삶을 통해 본 봉화지역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38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7~43쪽

던 군포 未收의 일 때문에 잠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산음현감에서 물러나 법전으로 돌아온 이듬 해였다. 이 시는 그 때 지은 것이다. 사실 守宰로 임명될 경우 반드시 十考(열번의 考課)를 거쳐야 임기를 채울 수 있으므로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강흠은 이 시에서 자신의 十考 治績을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낱낱이 열거하였다.

그가 아들과 조카 그리고 손자들에게 보낸 수없이 많은 편지들은 주로 이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편지에는 자제들의 학업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담겨 있다. 강흠은 학문의 근본에서부터 독서 대상과 방법 그리고 製述 연마의 요령까지 알려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독려하고 또 독려했다. 더불어 아이들의 편지를 통해 그들의 학업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다. 실기를 간행할 때 이 편지들은 대거 누락되었지만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연보에는 추가 보완되었다. 아래의 예문은 실기의 연보 1667년(현종8)에 있는 기록이다. 강흠의 나이는 66세였다.

선생이 아들 鄙에게 부친 편지에 이르길 ‘정형[鄭瀼]이 옛 거처로 돌아왔다고 하니 아이들이 다행히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한스러운 점은 내가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다.’²⁵⁾

강흠은 장자 호에게 보낸 편지에 정양이 봉화의 거처로 돌아왔으니 아이들이 그 곳에 가서 수업 받을 수 있겠다며 다행스러워하였다. 동일한 시기 정양의 연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록이 확인된다.²⁷⁾ 강흠은 아이들이 의지해서 배울 곳이 없다는 상황이 몹시 걱정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신마저 관직 생활로 가까이 있지 못하니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는 조카 찬과 손자 再發에게 보

25) 姜怡, 『二吾堂先祖遺稿』(乾) 卷1, <自述辭奉呈洪公紱>

26) 姜怡, 『潛隱先祖實記』(乾) 卷1, <年譜> 丁未(1667, 66세, 현종8), “先生寄子鄙書曰 鄭兄還歸舊棲云 兒曹幸得受業 而所可恨者 吾不得源源於跬步之地”

27) 鄭瀼, 『抱翁集』 卷7, <年譜> 乙巳(1665, 66세, 현종6), “潛隱姜公寄其胤鄙書曰 鄭兄還歸舊棲 兒曹幸得受業之所 命送侄孫受學焉”

넌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다. 姜鄺(1647~1729)은 동생 강각의 맏아들이고, 손자 강재발(1650~1677)은 장자 호의 둘째 아들이다.

돌아온 인편에 너희들의 편지를 받아보고 무탈하다는 것을 알았다. 정형[정양]에게 배우고 있다니 위로되고 또 기쁘구나. …(중략)… 二萬[재발]이 의지해 배울 스승을 얻어 유익함이 있다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너는 아버지가 없이 홀로된 젊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데, 만약 학문을 이루어 영화롭게 봉양하지 못한다면 지하에서 네 아버지를 볼 날이 없을 것이다. 게을리 하지 말아라.²⁸⁾

위의 편지 내용에 의하면 조카 찬은 이미 정양에게 나아가 수업을 받고 있었고 손자 재발은 막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조카 찬에게 보낸 편지에 “지금부터 급히 힘쓰고 재열과 함께 청풍[청풍부사 임유후]에 가서 고문을 배우거라”²⁹⁾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아 당시 강흡의 아들과 조카 그리고 손자들은 정양과 임유후에게 수학했음을 알 수 있다. 萬休堂 任有後(1601~1673)가 강흡을 위해 지은 제문을 보면, 강흡과 임유후 두 집안은 누대 동안 한 동네에 세거하였고 두 사람도 어려서부터 각별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³⁰⁾ 당시 임유후가 청풍부사(제천의 옛 지명)에 부임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라 아이들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임유후는 숙부 疎菴 任叔英(1576~1623)을 사사했는데, 임숙영은 김장생의 문인이다.

강흡은 동생이 일찍 죽자 조카 찬과 鄺를 친자식처럼 보살폈다. 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이러한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위의 편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죽은 동생을 생각하며 조카 찬이 학문을 성취해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봉양하기를 바래고 또 바랬다.

28) 위의 책, <奇猶子鄺仍示二萬等>, “便還見汝輩書 知免恙 受學於鄺兄 慰喜慰喜 …(중략)… 二兒得其依歸受學有益云 何幸如之 汝是無父孤兒 奉以青年寡母 若不能學成榮養 則地下無面見汝父也 毋怠毋怠”

29) 위의 책, <答示鄺姪>, “自今急務 與烈兒 往學古文於淸風”

30) 위의 책, <祭文>(任有後).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서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구나. 네가 지금 학업에 進就하는 것은 너의 근면함에 달려있을 뿐이다. 힘쓰고 더욱 힘써서 나의 갈망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것으로 네 죽은 아비의 혼을 위로해 준다면 다행이고 또 다행이겠다.³¹⁾

위의 편지에서도 강흡은 조카 찬을 또 독려하고 있다. 그는 조카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아들과 손자가 학업에 매진하여 성취를 이루기를 바랐다. 기반이 전혀 없는 타지에서 가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자체들의 과거급제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가 만년에 관직 생활로 집을 떠나 있으면서 끊임없이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이들의 학문 성취를 갈망했던 것은 곧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IV. 강흡의 인맥기반 범위와 그 특징, 그리고 후대에 끼친 영향

봉화 법전에 진주강씨가 세거하기 시작한 후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강흡의 영향은 전방위적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문중이 영남 남인의 본거지에 정착해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지역의 일반적 경향과 달리 서인(노·소론) 계열의 색채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이 역시 그 기저에 강흡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흡의 先代는 일찍부터 파주에 근거지를 마련해 先塋을 조성하고 한양 본가와 왕래하며 지냈다. 조부 강덕서는 이이와 교분이 두터웠고, 강윤조는 윤필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파평윤씨 가문과 인연을 맺었다. 윤필세는 윤선거(윤증의 父)의 조부 尹昌世와 중형제간이다.³²⁾ 이 당시 대를 거둬들여 관직에

31) 姜怡, 『二吾堂先祖遺稿』(坤) 卷2, <答鄴姪書>, “日月如流 歲不與我 汝今則進就學業 在汝勤不耳 加勉加勉 無負我如渴之望 以慰汝亡父之魂 幸甚幸甚”

32)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특히 입재 강재항과 명재 윤증 가문의 경우-」,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p.9~10 참조.

나아가고, 서울 경기 지역의 명문가와 혼맥을 형성하면서 강흡의 가문은 자연스럽게 서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성장한 강흡이었기에 그가 김장생을 사사하고 그의 문하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가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우윤종사 청원 상소를 올린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법전 정착 이전까지 그는 출사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에 주력했고 그 안에서 사승 관계를 형성하며 관련 인물과도 교류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던 때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흡은 온 가족을 데리고 태백산 아래 법전으로 피난했고, 이후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정착했다. 당시 같은 이유로 봉화 춘양 일대에 피난왔다가 역시 대명절의의 명분으로 정착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곧 심장세·홍우정·정양·홍석이었다. 강흡은 세상에 대한 뜻을 접고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태백산에 은둔하며 함께 산수 간을 소요했다. 심장세의 조부는 동서분당의 시조가 된 서인 심의겸이고, 정양의 조부는 松江 鄭澈이다. 홍우정은 洪可臣의 손자, 홍석은 洪暹의 증손이다. 이들은 한양 출신의 명문가 자제로서 그 선대부터 교분이 있던 인물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 강흡은 다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법전 정착 후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지역 내 명문 사족과의 혼인을 통해 입지를 강화해갔지만, 교류 인맥은 여전히 서인(노·소론)계에 닿아있었던 것이다.

강흡의 교류 인맥은 당시 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집안의 자제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그의 만년에 아이들을 정양과 임유후에게 보내 배우게 한 것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기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양은 송시열·송준길·유계·김집 등과 지속적 으로 교류했고, 자신의 아들 鄭普衍을 송시열에게 보내 수학하게 하였다. 또 임유후는 김장생의 문하생인 임숙영에게 수학한 인물이다. 강흡의 조카 찬이 후에 명재 윤증에게 나아가 배운 것도 손자 재열이 권상하와 교류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손자 재필의 아들 즉 증손자 元一이 당시 노론의 중심인이었던 陶菴 李縉(1680~1746)에게 강흡의 묘갈명을 부탁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였다.

아래의 계보는 강흡과 강각 형제의 아들과 손자들을 간략하게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 4] 잠은 강흡과 도은 강각의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찬은 어려서는 백부 강흡의 돌봄 아래 정양과 임유후에게 나아가 배우다가 나이가 들어서에는 명재 윤증의 문하에 나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강흡의 영향이 컸다. 윤증은 강흡이 막역하게 지낸 윤선거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강찬의 조카인 강재항이 쓴 그의 묘지명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府君(강찬)이 일찍이 명재 윤선생(尹拯)을 西峯里에서 뵈고는 마침내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어 섬겼다. 물러나서도 다시 편지를 올려 질문한 것이 매우 많으니 선생이 또한 칭찬하여 말하길 ‘나이가 많다고 講問을 그만두지 않고 存養과 省察을 게을리하지 않으니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³³⁾

강찬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승관계는 조카 재항으로 다시 재항의 아들 宅一로 이어진다. 강재항은 백부 강찬의 가르침을 받다가 윤증의 문인이

33) 姜再恒, 『立齋遺稿』 卷19, <伯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省愆齋府君行狀>, “府君嘗謁明齋尹先生于西峯 遂以師禮事之 既退 復以書疏請問甚多 先生亦稱之曰 年紀老大 講問不輟 存省不懈 欽歎不能自己 其見推如此”

로 나아갔고 윤증의 사후에는 그의 손자 一庵 尹東源(1685~1741)의 문인으로 다시 나아갔다. 재항의 아들 강택일은 윤동원을 사사한 같은 집안의 素谷 尹光紹(1708~1786)에게 나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³⁴⁾ 강찬의 장남 재주의 증손자인 姜植은 윤광소를 만나 그의 덕용과 학문에 감탄하고 자신의 아들 강필효를 그의 문하로 보내 배우게 하였다. 강필효의 아들과 조카들 역시 이렇게 이어진 소론계 학통을 따르게 되면서 강흡의 아우 강각의 자손들은 소론 계열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³⁵⁾

아래의 예문은 漢湖 金元行(1702~1772)이 강흡의 증손자인 姜元一을 위해 지은 묘표 중 일부이다. 원일의 부친은 강재필이며, 그는 강흡의 장남 호의 셋째 아들이다.

공이 이미 장성해서는 尤庵 선생의 풍도를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여, 말을 할 때 고상하고 엄정하게 하며 구차스럽게 하지 않았다.³⁶⁾

강원일이 장성해서 송시열의 풍도를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깊이 존경했다는 이야기다. 뒤이어 김원행은 강원일이 평소 자신의 선조 김상헌을 흠모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김상헌을 추모하는 사당을 짓는데 앞장섰던 일화도 기록하고 있다.³⁷⁾ 김원행은 김상헌의 5대손으로 도암 이재의 문인이 되면서 김수항-김창협-이재를 잇는 노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강원일이 이재에게 강흡의 묘지명을 부탁해 지은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것이 배경이 되어 강흡의 자손들은 노론계 색채를 좀 더 띠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4) 이에 대해서는 김윤조의 앞의 논문 ‘2장 윤증-강재항 가문의 교류’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35) 이에 대해서는 임규완의 앞의 논문 ‘2장 법전 진주강씨의 전통’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36) 金元行, 『漢湖集』 卷18, <學生姜公墓表>, “既長 聞尤菴先生之風 心悅之 言議抗厲不苟”

37) 金元行, 『漢湖集』 卷18, <學生姜公墓表>

V. 맺음말

강흡은 본래 한양·과주 출신이었으나 병자호란 직후 온 가족을 이끌고 봉화 법전으로 피난해 그대로 정착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진주강씨의 뿌리를 내렸다. 이후 법전의 진주강씨 문중은 영남지역에서는 드물게 노·소론계를 표방하며 그 역사를 계승해왔다. 본고에서는 강흡의 삶의 이력과 그가 교류한 인물들을 검토 분석하여 법전의 진주강씨 후손들이 표방했던 가학의 전통이 어디에서 근본하는지 그 기저를 탐색해 보았다. 현전하는 강흡의 저술은 문중에서 보관해 온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와 1912년에 간행한 목활자본 『잠은선생실기』 그리고 1969년에 간행한 석인본 『잠은선생실기』가 있다. 1969년 석인본은 목활자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사본 유고와 목활자본 실기 두 본을 비교 검토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사본 『이오당선조유고』를 저본으로 삼아 수정 가감하고 취사선택해서 간행한 것이 목활자본 『잠은선생실기』라는 점이다. 편집은 대략 19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편집 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취사선택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시기 후손들도 노·소론계를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강흡의 출신과 가문의 입지, 사승 관계 및 교류 인물 등 여러 가지 배경 요소들을 검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강흡의 삶과 교류 인맥을 봉화 법전 정착 이전과 이후로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봉화 법전에 정착한 이후 강흡은 이 지역에 문중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기 위해 지역 명문 사족과의 혼사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았지만 교류 인맥 범위가 확연하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봉화에 정착했던 태백오현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 교류 인맥은 법전 정착 이전과 비슷한 범위를 유지하였다. 결국 이러한 인맥이 아들 조카 손자들의 사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배경이 되어 법전의 진주강씨 문중은 영남 지역에서 드물게 노·소론계를 표방해 왔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晉州姜氏派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姜怡, 『潛隱先生實記』(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姜怡, 『二吾堂先祖遺稿』(필사본), 봉화 법전 진주강씨 문중 소장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고전종합DB

姜再恒, 『立齋遺稿』, 한국고전종합DB

한국국학진흥원, 『도은종택 및 석당공』,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학자료목록집 41, 2017.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특히 입재 강재항과 명재 윤증 가문의 경우-」,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임규완, 「법전 진주강씨와 해운 강필효」, 『한국학논집』 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정수환, 「17세기 분재와 전답소유권: 명문, 입지 그리고 분재기-경상도 봉화 법전 진주강씨 사례」, 『국학연구』 39, 한국국학진흥원, 2019.

권경록, 「태백오현의 삶을 통해 본 봉화지역의 문학지리」, 『한국학연구』 38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최은주,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5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Abstract

Characteristics of KangHeup姜恰 (pen name:
Jameun潛隱)'s life and his personal network shown on
his books

Choi, Eun-ju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Kang Heup (pen name: Jameun)'s life and his personal network. Although Kang Heup was born in Hanyang-Paju area, he took his family to Bonghwa Beopjeong after Qing Invasion of Joseon and took root in the region as the origin of Jinju Kang family. Then, Jinju Kang's family located in Beopjeon took the ideology of Noron faction and Soron faction, which was rare in Yeongnam area at that time. The reason why this study focused on Kang Heup's life and his personal network is to find out why the descendants of Jinju Kang family located in Beopejon took that ideology for their family study. The books authored by Kang Heup, which have been passed down to the current period, include the manually scribed book "Iodangseojoyugo", the carved wood plate printed book ('Mokpanbon') "Jameunseonsaengsilgi" published in 1912 and the carved stone plate printed book ('Seokinbon') "Jameunseonsaengsilgi" published in 1969. The Seokinbon published in 1969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Mokpanbon. The manually scribed transcript was compared with the Mokpanbon to ge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of all, the Mokpanbon "Jameunseonsaengsilgi" was created by adding or deducting some contents to and from manually scribed book "Iodangseojoyugo". The editing seems to have been made in early 1900s and the style of addition or deduction of contents in the editing process shows that his descendants took the ideology of Noron faction and Soron faction in that period. Kang Heup's ancestors had taken root in Paju from early days and Kang Deok-Seo, or his grandfather had have a good relation with the great scholar Yi I. At that time, their family members had taken high government positions in Seoul and married to people from the reputed family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us resulting in naturally becoming the faction of Seoin. On this backdrop, Kang Heup became a teacher for Kim Jang-Seng and got good relation with his students. When in Seonggyungwan, he even submit a plead for the Uryuljongsang in cooperation with other Confucian scholars. This study have researched Kang Heup's life and his personal network for the period before and after his moving to Bonghwa Beopjeon while checking many of his background elements such as the origin of Kang Heup, his family's position, and his relation with monks and his friends as well as other background. In conclusion, even though after moving to Bonghwa Beopjeon, he had made a lot of efforts in order to take firm roots in the area such as marrying his family members to the members of other reputed aristocratic families in the area, the scope of his personal network did not much vary. Especially, while making active exchanges with Taebaekohyeon who took root in Bonghwa area in the same period, his personal network kept the scope similar to that which had

been before moving to Beopjeon. This personal network had affected even his sons, nephew and grandson's relation. On that backdrop, his Jinju Kang family located in Beopejon had expressed the ideology of Noron and Soron factions in Yeongnam area, which was rare in the period.

keywords

Taebaekohyeon, Kang Heup (pen name: Jameun), Kang Gak (pen name: Doeun), Bonghwa Beopjeon, Jinju Kang family, Beopjeon Jinju Kang family, Yeognam Noron faction